

# 민주 청문회 '부적격자 숙아내기' 고민

### 위장전입·투기·병역·탈루+ 논문표절... '4+1' 기준 조현오·이주호·진수희 낙마 거론... 김태호는 타협론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정점을 향해 치닫하고 있는 가운데 10명의 청문회 대상 가운데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부적격 기준으로 이른바 '4(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1(논문표절)'을 제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선 현실적 타협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 모드를 지속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리의혹이 한 개라도 있으면 부적격자로 판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 개각을 강행하면 비리의혹과 민심이란 내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의 입장도 강경하다. 복지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진수희 내정자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말했고,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주호 내정자 임명 거부 결의성명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개숙인 조현오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이 24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46용사들의 묘역을 찾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기습에 답이었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연남뉴스

하지만 당내에는 일부 부적격 후보를 반드시 낙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숙아내기'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내정자 임명 시 민주당 등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3명만 떨어뜨려도 성과"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단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요 낙마 대상으로는 조현오 경찰청장과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박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강경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비리의혹이 심각한 2명 정도만 내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물밑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단기간에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23일 하루에 5개 청문회를 무더기로 연 것도 이러한 '빅딜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쪽방촌 건물 기부하겠다"

### 이재훈 지경부장관 내정자

지난 20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투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창신동 '쪽방촌' 건물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4일 "지난 주말 이 후보자가 전화를 걸어 여야 문제가 된 '쪽방촌(건물)'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문제의 쪽방촌 건물은 이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가 지난 2006년 매입한 것으로, 김씨가 지난 20일 인사청문회를 TV로 지켜본 뒤 이 내정자에게 이 같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쪽방촌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자선단체에 기부할 용의가 있는지는 질문에 "질문 취지를 이해한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서 "잘못했습니다"

###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24일 천안함 희생 장병이 안장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참모들과 함께 천안함 46용사 합동묘역을 찾은 조 내정자는 합동묘역 표지석 앞에서 분향하고 머리 숙여 고인들의 희생을 애도했다. 고 임재업 중사의 어머니 등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 10여명은 참배가 끝나고 조 내정자를 향해 가슴에 담

았던 말들을 쏟아냈다. 임 중사의 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라면(마음에) 다 같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애도했다.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도 "당신 아들이 한 달 동안 수장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동물로 보이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들의 잇따른 항의에 조 내정자는 시종일관 머리를 숙이며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남뉴스

# 광주 진곡산단 진입로 등 17건 2,500억 전남 새천년대교 등 12건 3조 지원 건의

### 광주·전남-한나라 국회예결특위 간담회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2011 국비예산 관련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는 25일 한나라당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이주영 위원장, 이종구 간사, 이정현 위원, 강월구 수석전문위원 4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 방문한 뒤 광주시 및 전남도와 각각 2011 국비예산 관련 간담회를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진곡산단 진입로 2538억원의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광주 첨단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광주시 요구액 1억원),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운영(50억원), 야구장 건립(100억원), 문화콘

텐츠기술연구원 건립(42억원),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 및 지원(10억원),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110억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건에 313억이다. 또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은 5건으로, 황룡강 친수 레저 하천 환경조성(250억원), 광주천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30억원), 동광주~광산나들목 호남고속도로 확장(20억원), 북부순남도로 건설(300억원) 등이며,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은 4건으로,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육성(100억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800억원), 산업용 레이저 핵심모듈 및 부품 국산화 지원(60억원), 하이테크물드 마케팅 허브 구축(70억원) 등이다. 이밖에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확대(45억원),

폐기물 전처리 시설 및 전용 보일러 설치(100억원)도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예산 지원 외에도 동북아상품거래소 유치, 그린에너지 분야 대기업 유치, 광주은행 분리매각, 영산강 살리기 수질개선사업 추가지원 등 지역현안사업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에 필요한 국비 예산과 신안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공사를 위한 국비예산 증액 등 모두 12건, 3조원 규모의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9일 서울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리는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2011년 국비 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현석·김지을 기자 chadol@

## 박지원 "이번부터 엄격한 인사검증 적용을"

### 김무성 "국민적 감정 용납안되면 책임져야"

야당의원들의 각종 의혹 제기로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4일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

회로 나가는데 협력해달라"며 "이번 개각에서부터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에 앞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의혹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부적격적으로 판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과한 질문은 결국 훌륭한 공직자를 만드는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 후보

자가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하며, 실제로 국민적 감정에 용납되지 못한 부분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갖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조 내정자는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부터 해야 했다"며 "경찰 총수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과부터 시작한 그는 이미 경찰 총수로서 자격에 큰 흠이 생긴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번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

### 이만섭 전 국회의장 비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4일 8·8 개각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죄송 청문회'라며 "죄송할 바에야 그만 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와 "대통령이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만 참고로 볼 뿐이지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후보자들이 일시적으로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 청문회 나와서는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간

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장사를 하라니까 왜 자꾸 나와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장관 오래된 사람들은 전부 연금이 있는데 노후대책 고려는 건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자도 모른다" 빈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사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망갔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초급	9월3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고급	9월31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초급	9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고급	9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27일까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등록시 10%감면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부터 - 전화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문강사** 소속 양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9.02.(목) ~ 2010.09.07.(화) / (총8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규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반드시 공회이사 경력자나 경력자 건설/실업/해당분야, 자선/공익/사회봉사 학·석사 학력자
실무경력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 원 장이명규 교수 062-670-2421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8월 1일부터 **전기요금 평균 3.5% 인상** 태양광 설비로 대비하십시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

우리집에 태양광 발전소가 생겼어요!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기존 3.0kw 이하 설비용량 추가설치 가능  
**설치효과 월 평균 90,68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3,05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설치장소 : 주택, 상가, 마을회관, 공장 등

3년 무상 AS 하자 보수증발급  
2.0kw~3.0kw 기준 560만원~740만원 설치

어떠한 공공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062-268-5118 / 011-9435-0441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JEONG WOO ENG CO., LTD.